

6~7일 현충일 연휴는 익산에서 근현대 역사 속 시간여행 떠나자

2025 익산 근대역사 문화축전, 중앙동 문화예술의 거리·숨리문화금고 등서 개최

익산시가 현충일을 맞아 근현대 역사를 문화 예술로 풀어낸 참여형 행사를 준비했다. 익산시는 오는 6~7일 이틀 동안 '2025 익산 근대역사 문화축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중앙동 문화예술의 거리와 숨리 문화금고, 항일독립운동기념관 일원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2025 익산 근대역사 문화축전은 익산시가 주최하고 (재)익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해 열리며, 익산지역아동센터연합회, 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 등 지역 문화예술 단체와 기관이 함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공동 기획했다. 추진위원회는 4차례에 걸친 추진위 회의를 통해 시민 참여 확대, 프로그램 완성도, 안전 관리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 왔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행사의 주제는 '역사 속 익산 시간 여행'이다. 1910년대부터 광복 이후까지의 역사적 기억을 골목과 무대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시간 여행형 콘텐츠로 채워진다.

특히 일제강점기 익목수리조합의 쌀 수탈 역사를 모티브로 한 미션형 체험 프로그램 '잃어버린 토지대장을 찾아라!'는 관람객이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역사적 장소를 체험하는 대표 콘텐츠로 기대를 모은다. 이외에도 1910년대부터 광복 이후까지 시대 흐름을 담은 주제공연과 근대 의복 체험, 뮤지컬 '영웅', '명성황후' 해설 음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청소년이 함께하는 '독도는 우리땅' 플래시몹도 준비됐다. 시민들이 광복의 기쁨을 기억하고, 역사 인식 공유와 세대 간 공감 형성을 위한 특별 기획이다. 익산의 근현대 문화자원이 다시 조명되고, 시민이 주체가 돼 지역의 역사적 자긍심을 함께 체험하고 알리는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세만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현충일 연휴 익산의 골목을 거닐며 근대 역사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면서 "시민이 함께 만들고 주인공이 되는 참여형 문화 행사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의 근대역사 콘텐츠를 시민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의 소중한 역사 문화자산이 널리 알려지고, 시민 모두가 익산의 역사 홍보대사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행사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익산문화관광재단 누리집(ictf.or.kr)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에는 익산문화관광재단 관광마케팅팀(063-843-8816)으로 하면 된다. 한편, 축제 기간과 연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도 함께 진행된다. 익산은 이날 2일부터 7월 17일까지 숙박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7만원 이상 숙박 예약 시 3만원, 7만원 미만은 2만원의 할인권이 제공된다. 숙박 할인이벤트 관련 문의는 전담 콜센터(1670-3980)로 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명창들이 들려주는 판소리 눈대목

국립민속국악원 '소리판 명창무대', 14일 예음헌서
김일구·송재영 명창 초청... 적벽가·춘향가 등 선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예음헌에서 2025 '소리판 명창무대'에 김일구 명창과 송재영 명창을 초청해 판소리 주요 눈대목을 들려줄 예정이다. 명창 무대는 국립민속국악원 개원 이후 꾸준히 이어져 온 '판소리 마당'의 일환으로, 판소리 대(大)명창을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기획공연이며, 공모를 통해 선발된 소리꾼이 무대에 오르는 '소리판 완창무대'와는 또 다른 형식으로 진행, 올해에는 6월과 9월, 총 2회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오는 14일 만날 판소리는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예능보유자인 김일구 명창의 박봉술제 '적벽가'와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판소리 예능보유자인 송재영 명창의 동초제 '춘향가'이며,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namwon.gugak.go.kr), 카카오톡 채널(국립민속국악원), 또는 전화(063-620-2329)로 예약할 수 있다. 국악원 관계자는 "당대 명창의 판소리를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무대에서 명창의 삶이



국립민속국악원 '소리판 명창 무대' 포스터.

판소리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깊이 있는 공연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컨템포러리·한국무용·발레를 아우르다

전북대 무용학과, 5일 지역민과 함께하는 정기공연 마련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학과장 이나현)는 오는 5일 오후 7시 삼성문화회관에서 '제34회 무용학과 정기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무용학과 재학생들이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직접 참여하고 준비한 무대다. 한국무용과 발레, 컨템포러리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특히 현실의 억압과 경계를 무너뜨리는 몸짓을 담아낸 컨템포러리 작품 'BAN, 금지'와 시각적 자극을 몸으로 표현한 '사라질 때에도' 등 창작 무용을 선보인다. 또한 덴마크 고전 발레인 '젠자노의 꽃 축

제',故최승희 선생님의 작품인 무당춤 '무녀도', 컨템포러리 발레인 'Omra mai fu', 여전사의 기개를 표현한 창작 춤 '장검무' 등도 무대에 오른다. 이나현 학과장은 "학생들 손으로 준비한 이번 공연은 단순한 움직임의 표현이나 기교의 과시가 아니라 움직임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자 한 예술 여정의 집약"이라며 "학생들의 성장을 응원해주는 지역민과 함께 예술의 감동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전석 초대료 마련된다. 관람을 원하는 시민은 전북대 무용학과(063-270-3746)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제19회 무주안성낙화놀이축제가 오는 6일과 7일 무주군 안성면 두문마을 일원에서 개최된다. 사진은 지난해 6월 7일 열린 제18회 무주안성낙화놀이축제에서 시민들이 불꽃놀이를 즐기고 있다. (사진=무주군청 제공)

산골영화제 가고... 낙화놀이도 즐기고...

무주안성낙화놀이축제, 6~7일 안성면 두문마을 일원서... 산골영화제 기간동안 개최

제19회 무주안성낙화놀이축제가 오는 6일과 7일 무주군 안성면 두문마을 일원에서 개최된다. 행사는 두문마을 낙화놀이 보존회(회장 박일원)가 주최·주관하며 무주군이 후원한다. 무주안성낙화놀이축제는 두문마을 주민들이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이자 전통 불꽃놀이인 '낙화놀이'를 알리고 이를 통해 사라져가는 전통문화 계승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06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는 19회째를 맞아 첫날에는 저녁 5시 30분부터 마을대동제와 축하공연, 낙화놀이 시연을 즐길 수 있으며 7일에는 저녁 6시부터 축하 공연을 비롯해 낙화놀이 시연이 진행된다. '소원 낙화봉 만들기'와 '업사이클링(upcycling) 열

쇠고리 만들기' 체험도 즐길 수 있다. 닭개장을 비롯해 채소전, 주먹밥 등 마을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다양한 먹거리도 맛볼 수 있으며 인근 체험휴양마을(무주군 농촌활력과 마을공동체팀 063-320-2788)에서 숙박도 가능하다. 박일원 무주안성낙화놀이 보존회장은 "불꽃이 출주는 두문마을 어르신들이 되살린 생활문화축제, 전통불꽃놀이를 보실 수 있는 기회"라며 "이번 주말에는 무주에서 산골영화제도 보시고 낙화놀이도 즐겨 보시라"고 말했다. 한편, 물 위에서 즐기는 전통 불꽃놀이인 낙화(落花)놀이는 떨어지는 불꽃이 마치 꽃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한지에 싸고 솥, 소금을 넣어 만든 낙화봉(100~200개)을 긴 줄

에 매달아 불을 붙이면 그 줄을 타고 이어지는 불꽃이 장관이다. 무주군 안성면 두문마을(두문마을 낙화놀이 보존회)에서는 2006년부터 낙화놀이를 복원하기 시작해 2016년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지정을 받았으며 무주반딧불축제에 통해 명성을 쌓고 있다. 현재 무주군 안성면 두문마을에는 낙화놀이 보존과 전수 활동을 위해 지어진 318.165㎡(대지 1,846㎡) 지상 2층 규모의 낙화놀이 전수관이 마련돼 있으며 홍보 영상관과 낙화봉 체험관, 낙화놀이 시연관, 사무실, 헛터,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쇼핑트래블라운지, 여행자의 짐 배달 서비스 개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무료 짐 배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엔 새롭게 도입된 짐 배달 서비스 '짐이 부탁하노라'는 전주역 및 시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전주한옥마을 인근의 원도심 숙박시설까지 여행객의 짐을 무료로 배달해 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전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전주와 익산 등 교통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14개 시·군을 연계한 여행객의 유입 확대에 따라 도입됐다. 신청은 인터넷 창에서 '전북쇼핑트래블라운지' 검색 후 네이버 플레이스의 예약 폼을 통해 가능하며, 서비스는 교통 거점 시설인 전주역과 고속·시외버스에서 원도심·한옥마을·서학예술마을에 숙박하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장은성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후원하는 전주 JB문화공간이 지난달 31일 제1회 전북은행 재즈페스티벌 '재즈 옛 더 뱅크: 불'을 개최했다.

전주 JB문화공간 '제1회 전은 재즈페스티벌' 성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후원하는 전주 JB문화공간이 지난달 31일 제1회 전북은행 재즈페스티벌 '재즈 옛 더 뱅크: 불'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은행이 후원하고 전주 JB문화공간이 주관한 이번 재즈 페스티벌은 전주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경관을 배경으로, JB문화공간 투포탑에서 국내 정상급 재즈 뮤지션들의 무대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하고 낭만적인 시간으로 마련됐다. /오상근 기자

이번 공연은 KBS FM '재즈수첩'의 진행자 황덕호 재즈칼럼니스트가 맡아 프로그램의 완성도와 품격을 더하며 관객들에게 색다른 문화 경험을 선사했다. 1부에서는 풍부한 소울의 '조해인 퀵텟'이 어쿠스틱한 재즈 명곡들을 선보였다. 2부에서는 '박재홍 블루스 밴드'의 에너지가 폭발하는 무대가 이어졌다. 다음 페스티벌은 오는 9월, 가을바람과 함께 찾아 올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전주문화재단, '2025 탄소예술 기획전' 참여작가 최종 선정

이을·이정란 등 총 6명... 창작지원금·전문가 멘토링 등 제공

탄소예술 기획전에 참여할 작가 6인이 최종 선정됐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은 최근 전문가 회의와 심사를 통해 '2025 탄소예술 기획전' 참여 작가로 △이을 △이정란 △정유리 △조민지 △차건우 △최은우 등 총 6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3일 재단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협력을 통해 '탄소'라는 새로운 예술 매체의 가능성과 확장성을 모색하며, 탄소 소재를 기반으로 한 예술 장르 개척에 꾸준히 힘써 왔다.

특히 전주의 대표 산업인 탄소산업과 예술의 협업을 통해 탄소 소재 산업과 예술 간 연계를 강화하고, 한국 탄소 예술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탄소예술 기획전'은 지난 2021년 첫 개최 이후 지금까지 총 46명의 작가를 발굴, 200여 점에 달하는 탄소 소재 작품을 선보였다. 선정 작가들에는 △창작지원금(400만원) △탄소 소재 성형공법별 심화 교육 △1:1 전문가 멘토링 △탄소 소재 지원 △작가 홍보 및 홍보물 제작 등이 제공된다.

참여 작가들은 탄소 소재를 60% 이상 활용한 미발표 신작 3~5점을 제작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재활용 탄소 소재를 활용한 예술적 창의성과 표현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문화상품으로의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한 결과물을 통해 탄소 소재의 예술적 잠재력을 제시할 계획이다. 최라기 대표이사는 "탄소 예술은 산업적으로 활용이 어려운 탄소섬유를 예술 창작의 재료로 삼아 예술과 첨단소재 기술이 융합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이번 기획전을 통해 예술과 기술이 융합하는 '탄소문화산업'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